



민족문화추진회의 한 직원이 국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국역은 고전 작품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 정부 기록, 경전이나 사서, 개인 문집, 심지어 족보까지 뒤져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원유현기자

● 국고문헌 분량과 국역 현황

서명	번역 총량(자수)	기 번역량	잔여량
조선왕조실록	447책(4,700만자)	447책	-
승정원일기	1,813책(2억4,000만자)	241책	1,572책
일성록	516책(6,000만자)	71책	445책
비변사등록	180책(2,300만자)	30책	150책
각사등록	368책(-)	3책	365책
계	3,324책	792책	2,532책

● 한문 고전 책수와 국역 예상 책수

	추정 책수	번역 예상 책수	기 번역 책수	잔여 책수
경 서	1,500책	560책	-	560책
사 서	2,750책	1,020책	214책	806책
제 자	3,320책	1,230책	39책	1,191책
문 집	4,950책	1,830책	309책	1,521책
계	1만2,520책	4,640책	562책	4,078책

출처: 성균관대 신승운 교수 '국학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 (2006.4)

한자의 벽에 갇힌 전통을 구한다

“고전 번역 없이는 더 이상 과거와, 역사와 소통할 수 없게 된다. 소통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고 대립과 단절, 충돌과 부정으로 이어진다. 번역을 통한 과거와의 소통, 지식의 보급은 국가의 역량이 된다.”

최근 학술진흥재단 정책연구 사업으로 '국학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 보고서를 낸 신승운 성균관대(문헌정보학과) 교수는 한자라는 틀에 갇혀 망각의 늪에 빠진 고전을 국역해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민주화'라 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기록문화 유산을 자랑한다. 조선시대 임금의 비서실 격인 승정원에서 작성한 '승정원일기' 3,245책의 글자수는 2억4,125만여자에 달한다. 중국 명나라 294년의 역사를 기록한 명실록의 글자수가 1,600여만자인 점과 비교하면 그 방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남아 있는 16대 인조(재위 1623~1649)부터 고종까지 승정

원일기 중 한글로 옮겨진 것은 고종때 것뿐이다.

꼭 번역해야 하는 고전은 얼마나 되고, 언제쯤이면 '까막눈' 신세를 면해 조상의 남긴 글을 쉽게 볼 수 있을까. '국학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 해 동안 60여책을 번역하는

국가문헌만 3,300여책 기록유산 방대

현재 속도로 번역하면 100년 걸려

정부지원 늘었지만 체계적 계획 미흡

현재의 여건대로라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국가 기록물(국고문헌) 전체 3,300여책 중 번역이 안된 2,500여책, 문집 등 일반 고전 가운데 번역이 필요한 4,000여책을 모두 번역하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 민족문화와 사상의 정수인 막대한 기록 문화를 눈 앞에 두고 그대로 썩히는 셈이다. 박헌순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실장

은 “옛 기록에 어떤 보물이 들어 있는지 '나 몰라라' 하면서 기능이나 음식, 옷 등만 우리 전통이라고 하는 게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1966년 1,000만원의 정부 지원으로 시작한 고전 국역 사업은 40년 만인 지난해 43억 지원, 연간 60여책 번

역 등 외형적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정부의 예산 지원이 국고보조금 형태여서 지원 액수가 들쭉날쭉하고, 회계연도 내에 지원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탓에 단기 실적 위주로 번역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여러 사람에게 번역을 나눠 대부분을 부업식으로 외부에 부탁하는 '위촉번역' 등 번역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 주도인 중국 대만 독일

등과 달리 민족문화추진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등 민간단체가 번역의 대부분을 맡고, 번역 인력 양성도 연구 중심인 학위 과정과 독해 중심인 비학위 과정으로 나뉘어 있다. 그렇다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밑그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한문 고전 번역을 전담하는 정부출연기관(가칭 '한국고전번역원')과 전문 번역 교육기관(가칭 '한국고전번역대학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에 대해선 교육부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국역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요즘 한창 방영되는 고구려 관련 사극에서 신하들이 왕에게 '사료되었습니다'고 하는데 '사료'는 조상들이 전혀 쓰지 않은 말이다. 당장 나라에서 펴낸 국어사전부터 우리 고전에서 용례를 따지 못해 70만 단어 중 20만개 이상이 선조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는 말로 대신 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古文 안에 문화콘텐츠 있다

영화 '왕의남자' TV '별순검' 등 단초 제공

고문서 번역과 연구는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그치지 않는다. 문화콘텐츠 개발 열기에 부싯돌 역할을 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금술을 발휘하기도 한다.

1,230만 관객을 동원한 국내 최고 흥행영화 '왕의 남자'가 대표 사례다. '왕의 남자'의 원작인 연극 '이(爾)'는 사진실(중앙대 음악극과) 교수의 궁중공연문화에 대한 논문과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조선시대의 과학수사를 다룬 드라마로 재구성한 MBC의 '별순검'도 국역 도움을 톡톡히 받았다. 조선 정조부터 순조에 이르는 검안 기록이 담긴 '증수무원록' (增修無冤錄)이 국역되지 않았다면 시청자들은 조선시대 형사사건 수사의 과학적 면모를 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영화 '혈의누'도 마찬가지. 조선시대의 형벌을 정밀하게 재연해내는 장면은 증수무원록의 내용 등을 한글로 옮긴 자료들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어권 한류 열풍의 주역인 TV 드라마 '대장금'도 국역된 조선왕조실록이 창작의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도 고전문화라는 원석을 깎고 다듬어 대중문화라는 보석으로 만드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02년부터 '문화원형의 디지털화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를 문화콘텐츠 소재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5년간 5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61개의 소재는 175건의 문화콘텐츠로 활용됐다. 조선 후기 한양도성 자료의 경우 '왕의 남자' 궁궐 연희 장면에도 도움을 줬고, 고구려 건국 신화와 복식에 대한 문헌은 MBC 드라마 '주몽'에 이용됐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대학... 국역연수원 등 비학위과정...

어학에 치우쳐 번역교육 소홀

■ 한문 어디서 배우나

1980년대에 서울대에 한문학과 신설안이 나왔다가 무산된 적이

있다. 한문학이 국문학의 한 장르라는 입장에 밀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문 고전의 바다를 누비며 그 정신의 정수를 현대 한글로 옮기는 이들은 어떤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양성되고 있을까.

한문 고전 교육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대학의 한문·국문학과 등 학위 과정과 '서당'의 전통을 이어온 비학위 과정이다. 하지만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에 마련된 학위과정의 한문 교육은 대부분 어학교육에 치우쳐 있고, 고전번역 강좌는 거의 전무하다.

비학위 과정으로는 국고로 운영되는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이 대표적이다. 명칭에서 보듯, 이 기관의 설립 목적은 '한국 고전의 현대화를 담당할 인재 양성'이다. 그리고 현재의 한문고전 주축 역자군(55명)의 85%가 이곳 출신이다. 이 밖에 '지곡서당'으로 불리는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한문연수원, 전통문화연구회의 고전연수원 등이 3년 내외의 고급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학위 과정도 문제는 있다. 성균관대 신승운 교수가 4월 발표한 '국학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연구'에 따르면 비학위 기관들의 커리큘럼 역시 원전 강독에 치우쳐 있다. 그나마 민족문화추진회 과정의 일반·상임 연구부에 각각 17%와 33%의 국역실습 과정이 있는 정도다. 학위도 없고 장래가 확실한 것도 아닌 탓에, 번역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높다는 점(평균 37.8세)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 교수는 “고전 번역이 이 정도라도 성과를 낸 것은 과거 조선왕조실록 번역 등을 둘러싸고 역사적 정통성을 선점하기 위해 남북이 벌인 경쟁 덕분이기도 하다”며 “이론(고전연구)과 실제(번역)를 보완할 전문 연구·교육기관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운필기자 walden@hk.co.kr

의로운 똥? 암호를 풀어라

〈義糞: 의주 파발이 아무리 급해도 똥은 싸야 한다〉

■ 고전 번역의 본산 '민족문화추진회'

온갖 고사·비유 뛰어넘어 코드 찾아야

“의로운 똥(義糞)이라.” 27일 서울 종로구 구기동 북한산 등반로 초입에 있는 우리나라 고전 국역의 발원지이자 본산 격인 민족문화추진회(회장 조순)를 찾았더니 ‘똥’ 이야기를 한다. 문집팀 흥기은(46) 위원이 “한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농담”이라며 꺼낸 이 이야기는 옛글을 읽는 어려움과 맛을 잘 말해준다.

글을 읽다가 ‘의분’이란 표현을 보면 ‘의주 파발이 아무리 급해도 똥은 싸야 한다’(義糞擺撥難急可以放糞)는 문장을 줄여 쓴 것임을, ‘학이(學而)라고 써 있으면 ‘학이시습지... (學而時習之...)’라는 논어의 구절을 줄여 쓴 것임을 바로 알아채야 한다. 요즘이야 할 말 못할 말 다 쓰지만, 옛 선인들은 이처럼 글을 아끼고 줄여 썼다.

공근식(41) 차장은 “한자를 5,000자 정도만 알면 웬만한 고전은 다 읽을 수 있지만 해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말한다. 이 같은 함축에 더하여 유래도 찾기 힘든 온갖 고사와 비유가 거대한 벽처럼 버티고 있어 “최소 10년 이상 공부해야 첫걸음은 뗐다”고 할 수 있다. 선종순(49) 위원은 “우

리나라 현실에 다 커서야 공부를 시작하니 그 많은 책을 언제 다 보나 싶다.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하는 것이다”며 웃는다.

하루 종일 선인들이 남긴 글들을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꿈에서도 업무를 볼 때가 많다. 흥기은 위원은 허목(許穆·1595~1682)의 문집을 옮기는 중인데 꿈에 허목이 나타나 어려운 부분을 직접 가르쳐 주거나, 낮에 막혔던 부분이 술술 읽힌 적이 있다고 한다. “앞뒤가 뒤죽박죽으로 엉켜서 고생하는 ‘개꿈’을 꾸면” 머리만 더 지끈거리지만...

민족문화추진회는 1966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서 한글로 옮겨진 고전 가운데 64%인 102종 984책을 펴냈다. 최근 10년간 보면 점유율은 무려 76%까지 올라간다. 국가예산을 지원받긴 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민간기관이 이뤄냈다고 믿기 어려운 성과다.

박봉애가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이들은 왜 매달릴까. 문집팀 임정기(56) 위원은 “그저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이라고 짧게 말했다. 그는 구한말의 거유(巨儒) 간재(良齋) 전주(田愚·1841~1922) 선생, 연재(淵

齋) 송병선(宋秉璿·1836~1905) 선생 문하에서 공부한 선친 슬하에서 글을 배웠는데, 지금까지 종종 인조실록과 정조(正祖·1752~1800)의 홍재전서(弘齋全書)중 시집, 이색(李穡·1328~1396)의 목은집(牧隱集) 7책 등을 번역했다. 요즘은 서거정(徐居正·1420~1488)의 사가집(四佳集) 중 최근 발견된 희귀본을 번역하는데, 전혀 알아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곳을 짚으며 “이 글 뒤로 ‘선생(先生)’이란 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위원들 가운데는 중앙일간지 해직기자 출신도 있고 82년 부산 미 문화원 방화사건 관련자도 있다. 승정원일기팀의 김낙철(46) 위원은 36세 때 “한문 공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서” 직장을 버리고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경우다. 허목 문집에서 노수신(盧守愼·1515~1590) 신도비를 번역하던 최채기(43) 위원은 “지식도 많아야 하지만, 미치지 않으면 어렵다”고 한다. 옆에서 바로 “일부는 미친 사람들이지”란 추임새가 따른다.

“우리가 옛 사람보다 나은 것은 사전과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있다는 점” “사전 100종은 있어야 한다”는 말에 온갖 사전이 들어찬 서가를 돌아봤더니, 일반판 ‘대한화(漢和)사전’ 한 질이 위 아래가 뒤집힌 채 서 있다. 너무 오래 본 탓에 두꺼운 하드커버의 사전이 비틀어져 바로 잡히라고 거꾸로 세워놓았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사상과 문화의 정수를 현대에 되살려 전한 민족문화추진회의 묵묵한 노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 기관별 국역 수행현황(1965~2006)

	민족문화추진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학술진흥재단	법제처	퇴계학연구원	국방군사연구소	전통문화연구원	농촌진흥청	계
종수	102	35	12	1	9	21	2	13	9	11	215
책수	984	341	32	24	28	43	30	20	17	10	1,529

출처 : 성균관대 신승은 교수 ‘국학진흥을 위한 기획조사연구’(2006.4)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민족문화추진회 위원들이 27일 조선시대 임금을 보좌한 비서실 격인 승정원이 작성한 ‘승정원일기’ 국역과 관련한 회의를 하고 있다. 승정원일기는 2억4,000만자가 넘는 세계 최대의 기록물로, 민족문화추진회는 전체 3,245책 중 1,819책의 국역을 맡았다.

고전 번역... 시각의 번역을 돕는 사람들

“어디서 띄어 읽냐 따라 뜻이 확 바뀌죠”

■ ‘고전 대중화’ 작업 30년... 허경진 연세대 국문과 교수

한문으로 된 고전 작품을 한글로 옮겨 책으로 내는, 고전 대중화 작업에 30년 넘게 매달려 온 허경진(54)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가 내린 한문 번역의 정의는 ‘고전을 현대에 맞게 되살리는 작업’이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독자가 읽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선조들의 명시를 번역한 ‘한국의 한시 시리즈’, ‘연암 박지원 소설집’, ‘다산 산문집’, ‘서유견문’ 등을 한글로 펴내는 등 지금까지 50여권을 국역해 출간했지만 여전히 어렵다.

“고전 작품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구두점이 없으며, 다른 글의 인용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어디에서 띄어 읽느냐, 어디까지가 인용구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역본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은 이 때문이지요.”

그는 1974년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다. 그는 원래 시인 지망생이었다. 기형도, 공지영 등을 배출한 연세문학상을 수상할 정도였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 후 한시집을 읽다 문득 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졌다. “당시 창작과비평사가 ‘창비시선’을 발간해 인기를 얻었는데, 비슷한 성격의 한시 선집을 내고 싶었어요. 고교시절 들었던 한문 고전을 한글로 다 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어요.”

퇴계 이황의 14대 손(孫)인 이가원(1917~2000) 선생의 가르침도 힘이 됐다. 허 교수의 대학 은사인 이가원 선생은 한문 고전의 국역을 사명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의 뜻이 허 교수에게 계승된 셈이다.

허 교수의 첫 번역서는 80년에 나온 한시비평집 옥류산장시화(玉溜山莊詩話). 이후 해마

“뜻대로 해석 안되는 부분은 아예 책에 실지도 않아”

다 두 권 정도 한시 번역본을 출판했다. 90년대에는 오전 8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수업 등을 제외하고는 번역에 매달렸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원고지 100장을 국역하면 두, 세 권대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아예 책에 실지 않습니다.”

앞으로 번역하고 싶은 작품은 김만중의 ‘서포만필’과 박지원의 ‘열하일기’다. “내용이 방대하거나 국역본도 많지 않기 때문인데, 요즘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현재의 언어로 옮겨 보고 싶습니다.”



허경진 교수는 “한문 고전 국역은 즐거움보다 괴로움이 더 많지만, 선조의 생각을 현대인에게 전달한다는 점에서는 보람있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배우한기자

草書 연구 ‘한국고간찰연구회’ 흘림체 草書속엔 선조들 일상이...

초서(草書)는 흘려 쓴 서체로 획의 생략과 연결이 심해 일반인이 알아보기 힘들다. 그런 초서를 제대로 공부해 보겠다는 모임이 ‘한국고간찰연구회’다. 조선왕조실록처럼 관에서 출판된 기록물들이 대부분 해독이 어렵지 않도록 해서(楷書), 행서(行書)로 쓰인 반면 간찰은 초서가 많다. 공식 문서와 달리 개인적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간찰은 선조들의 일상과 세상을 보는 그들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준다.



한국고간찰연구회 회원들이 제주도에서 현장연구를 하고 있다.

지사 성보박물관장 등 모두 16명이 회원이다. 대부분 한학자 청명 임창순(1914~1999) 선생의 지곡서당 제자들이다. 이들은 청명 선생 사후 초서

공부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99년 3월 공부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모임은 ‘초서를 타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일요일에 모인다’는 뜻에서 ‘말일파초회’(末日破草會)라고도 부른다.

2003년 ‘옛 문인들의 초서 간찰’을 책으로 냈고 서울대박물관 소장 간찰집 근역서휘(楨域書彙)의 번역에도 참여했다. 최근에는 개인소장 간찰첩 6권, 123통을 한글로 옮겨 ‘조선시대 간찰집 모음’을 냈다.

박광희기자